

치카노/나 종교적 담론의 사회문화적 의미

이 은 아
단독/서울대학교

Lee, Eun-A(2005), Socio-cultural meanings of Chicano/a religious discourses, *Revista Iberoamericana*, 16, pp. 131-150.

This study purports to examine various articulations about Chicano/a religiosity or spirituality in cultural, theological and literary realms. For Chicano/a, the issue of spirituality or religiosity presumably involves a complex matrix of identity, culture, gender and race. Thus,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Chicano/a's commitment to appreciating or contesting religious culture is inseparably connected to the process of formation of identity.

It has become a generously accepted reality that official Catholicism has failed to acknowledge their own cultural knowledge, female sensibilities and sense of justice. This Catholicism's failure has allowed Chicano/a to develop a language of defiance and resistance especially by means of the reassessment of popular religiosity and Virgin of Guadalupe. Combining with indigenous tradition and Mesoamerican philosophy, Chicano/a authors and academics seek to appropriate contemporary theological strands such as liberation theology and Latino theology. Chicano/a engagement in developing religious subjectivity in terms of theology is deeply interrelated with the negotiation with the issues of 'otherness' and 'mestizaje', which have imbued them with social, cultural and spiritual marginalization. They attempt to elaborate the significance of their ethnical and racial 'difference' by way of the reinterpretation of ecclesiastical meaning of these concepts, which lead the reader to reappraise their ontological 'difference'.

The study finally aims to show how Chicano/a authors, whereby their art, defy religious and cultural patriarchy and thus discover their identity, and reencounter the self, the other and the society, as they reflect on the roles of religion paralleled with feminism, ethics and humanism. In reassessing Catholic practices and indigenous traditions, they participate in discovering hidden values and building their communities, and also ultimately proposing an alternative religiosity, which experiences ongoing exchange and adaptation.

Key Words: Chicano/a religiosity/ Popular religiosity/ Virgin de Guadalupe/ Latino theology, 치카노/나 종교성/ 대중적 종교성/ 과달루페 성모/ 라티노 신학

I. 서론

이 글에서 치카노/나의 종교성/영성에 관한 담론이 동시대의 그들의 삶에 어떤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물론 종교성 혹은 영성을 논하기 이전에 ‘종교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사물과 현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 자기중심적인 세속적 욕망이나 이해관계를 벗어나 현상의 배후를 감지하고자 하는 초월성에 대한 회구로 이해하고자 한다. 종교가 모든 치카노/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파악한다면, 이것은 지나친 일반화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종교 논의가 치카노/나 문화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 주제가 그들의 인종, 성, 계급 등의 복잡한 권력관계와 직접적으로 혹은 함축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치카노/나에게 있어 종교는 일반적으로 삶의 양식이자 감성을 지배하는 근원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카톨리시즘은 역사적으로 변형과 적용의 과정을 통해 문화의 근간을 이루면서, 미적, 윤리적, 인식론적인 측면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종교라는 개념 자체는 치카노/나 일반에게는 물론 카톨릭 신학자나 전문가에게도 미국 제도권 교회의 시각과는 차별적인 의미로 수용되고 있다. 스페인 식민주의시대로부터 이전/전수된 전통적인 카톨리시즘의 영향이 동시대까지 전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영적인 뿌리들이 융합되고 재창조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만의 혼종적인(hybrid) 종교로 변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중적(popular) 카톨리시즘이나 민속적(folk) 카톨리시즘 혹은 대중적 종교(popular religion)라는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우선 이런 카톨리시즘의 성격을 좌우하게 된 것은 중세 스페인 카톨리시즘의 영향에서 찾을 수 있다. 스페인인들의 종교 수호에 대한 호전적인 성격과 비사제인(lay people)에 의한 종교 교육, 상징과 기호를 통한 스페인 중세의 신비주의적 열정 등이 현재 히스패닉(Hispanic) 카톨리시즘의 기본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중남미인들의 토착종교와 혼합되면서 제의적인 성격과 감각적인 요소의 개입이 주된 특징을 이루게 되었

다. 따라서 라티노/나 작품에서 흔히 다뤄지는 카톨리시즘은 문화의 다양함과 풍부함을 반증하는 예이자, 해석 가능한 신념체계라기보다는 변화 속에 놓인 문화적 실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치카노/나 종교성 혹은 종교문화에 대한 연구는 1969년 아즈틀란(Aztlán) 문서의 공포와 함께 가속화되었다. 이후 종교성/영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예술과 정치와의 관련성이 심도 있게 연구되기 시작했다. 치카노/나 문학은 라티노 문학의 범주 안에서도 영적인 중요성을 지리적인 의미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미국 남서부지역의 지역적 전통의 회복, 인디오 역사와 신화를 통한 집단적 정체성의 탐구라는 성과를 내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북아메리카 원주민과 치카노/나 사이의 연계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묘사했으며, 이성과 감성의 이분적인 사고를 극복하는 새로운 인식론과 역사를 탐구함으로써 초기 치카노/나 문학의 비판정신을 심화시켰다.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의 종교성/영성에 관한 담론은 치카노/나 문화형성과 치카노/나 의식의 표출과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신학, 문화, 비평, 문학에서 어떤 종교적인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종교성에 관한 토론이 문학과 문화의 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그 생산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90년대 이후 출판된 작품들의 경향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면서 앞으로 종교 담론에서 요구되는 개념적 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라티노 신학의 성과

라티노 신학의 연구를 살펴보면, 치카노/나 작가나 비평가들과 공통된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신학자들의 경우는 치카노/나로서의 정체성 고민을 신학적인 영역 안에서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들은 인종적인 혼혈성(mestizaje)과 종교적·문화적 혼종성(hybridity)이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논의를 구성하고자 한다. 그런 논의 자체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들의 종교 담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치카노/나 학자, 작가들은 상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비평의 창조적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틴아메리카 신학은, 민중신학자이자 교회역사학자인 엔리케 뒤셀(Enrique Dussel)이나 사회인류학자인 마누엘 마르살(Manuel Marzal)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 싱크리티즘(syncretism)에 대한 정치적·문화적 의미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신의 현현이 공동체와 타자를 통해 드러난다는 생각은 결국 성-속의 결합과 정치성과 영성의 연계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라틴아메리카 신학자들의 생각은 자민족중심주의와 백인우월주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저항하고, 나아가 배제와 차별을 거부하는 탈식민주의적인 사고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라티노 신학도 해방신학적 입장을 견지한 채, 주로 문화론적인 접근을 통해 그들의 종교성을 해석하고자 시도한다. 즉, 현세의 구체적 현실에서 종교의 본래적인 의미인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부터 신학적 논리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논점은 비르힐리오 엘리손도(Virgilio Elizondo)가 그의 신학의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 혼혈성에 대한 종교적 의미부여라고 할 수 있다. 해방신학의 구스따보 구띠에레스(Gustavo Gutiérrez)처럼 라티노 신학의 선두주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엘리손도는 그들의 존재적인 혼혈성을 해방적 실천행위와 연계시키고 있다. 스페인과 미국에 의한 이중 정복의 산물로 인식되어 온 이 혼혈성을 새로운 세계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신의 계획에 의해 탄생된 역사적 조건으로 탈바꿈시키려고 한다. 과달루페 성모(Virgen de Guadalupe)가 출현한 떼페약(Tepeyac)을 갈릴리 지방의 중남미적 지역의 비유로 간주하면서, 예수의 사회, 인종적 배경을 ‘거부된 메스티소’(rejected mestizo)로 이해한다. 즉 치카노/나의 혼혈성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새로운 인류로, 떼페약은 하나의 해방의

역사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신약의 의미가 유대적 인종주의와 헬레니즘적 지성주의를 극복하고 이방세계를 향한 세계주의에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남서부지방에 거주하는 이 메스티소들은 새로운 크리스찬 세계주의를 행할 선택적 행위자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타자성(ootherness)과 이방성(foreignness)을 품을 수 있는 조건이 그들에게 생래적으로 부여됐다는 점으로 자신들의 인종적인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종교적인 언어로 설명된 신학적인 것이지만, 그 내용상으로 본다면, 글로리아 안살두아(Gloria Anzaldúa)의 국경지대(borderland)에 거주하는 경계인에 관한 철학적 설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안살두아의 논의는 치카노/나가 지닌 태생적 ‘다름’이나 ‘차이’에 대한 존재론적인 해석으로서, 이 경계성이야말로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넘어서는 창조적인 근거라는 것이다. 엘리슨도가 말하는 타자성으로서의 혼혈성을 바로 그 ‘다름’으로,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신에 의한 선민적 조건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학의 영역에서도 혼혈성과 타자성의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사고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 되는 듯하다. 문학의 영역에서도 치카노/나에 대해 쓴다는 것은 우선 그들의 혼혈성의 개념의 재정립을 전제로 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미국 사회에서 치카노/나의 주체성을 부정적으로 정의내리고자 하는 헤게모니적 담론에 대해서 치카노/나 개인 혹은 공동체의 가장 시급한 요구였던 것이다. 초기 치카노/나 작품들에서 아즈텍 신화와 상징에 대한 묘사와 인디오의 문화에 대한 형상화는 반헤게모니적 저항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이 타자로 규정되는 것에 대한 초기 저항의 시기를 거친 후에는 타자성 자체에 대한 신학적·철학적 정의의 단계로 나아간다. 치카노/나 이론과 비평에서 치카노/나를 규정하는 용어가 혼합적(syncretic)에서 혼종적(hybrid)이라는 의미로 변모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Pérez-Torres, 1995, 49) 이와 마찬가지로 신학에서도 인종적 ‘차이’를 타자를 향한 존재적 개방의 의미로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확연하게 보인다.

2. 과달루페 성모에 대한 재해석

치카노/나 종교 논의에서 중심이 되는 사안들 중에 두드러지는 것은 과달루페 성모에 대한 민중적 선호와 싱크리티즘으로 일컬어지는 대중적 종교성(popular religiosity)의 지배적인 영향이다. 치카노/나 영성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적 인물이라면 단연 과달루페 성모라고 할 수 있다. 과달루페 성모는 16세기 멕시코 아즈텍 여신인 토난친(Tonantzin)의 성스러운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메페악에 출현한 이후로 역사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종교적·문화적 상징으로 존재해 왔다. 신화적 여신과 카톨리시즘의 성모마리아의 중재적인 여신의 이미지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이상적인 여성성에 대한 문화적인 은유로 기능해 왔다.

과달루페 성모가 그들에게 각광받았던 역사적인 이유는 그들과의 인종적, 계급적인 동질감과 함께,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죄악과 연계시켰던 전통 카톨리시즘의 해석과는 상이하게, 성적 정체성을 분명히 표출함으로써 여성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제시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유색인 여성인 과달루페 성모는 16세기 멕시코의 후안 디에고(Juan Diego)에게 신성과 기적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래로, 라틴아메리카의 가난한 메스티소의 수호자이자, 교회와 정부의 남성적 권력에 맞서는 어머니라는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마리 크리스티앙(B. Marie Christian)(2005, 187-189)은 신학자인 에스핀 오를란도(Espín Orlando)의 연구를 빌어, 과달루페 성모의 위상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식민시대 스페인 선교사들의 인디오 신관에 대한 무지에서 찾는다. 선교사들은 아즈텍인들이 지닌 양성적인 신성에 대한 이해없이 부성으로서 상징되는 신관만을 이전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아즈텍인들은 여성적 신성을 순종적인 이미지의 성모 마리아에게서 발견하지 못했기에 과달루페 성모를 아즈텍적인 여성적 신성함을 지닌 성모로 신격화시켰다는 견해를 펴낸다. 따라서 남성적인 스페인 카톨리시즘의 삼위일체론에 저항하는 대안으로서 과달루페 성모의 지위가 신과 동등한 위치로 부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위의 견해는 다수의 치카나 작품에서 모계중심의 문화와 여성으로 이루어진 세대간의 종교 전수를 통

해, 모계적 삼위일체로 간주될 수 있는 대안적인 영적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작가들의 시도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과달루페 성모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해진 계기는 치카나 페미니즘의 부흥에 있다. 치카나 페미니즘은 그간 여성들을 억압했던 이중적이고 역설적인 스테레오 타입인 처녀성과 모성의 이미지를 전복하고자 한다. 내면화된 신화를 전복하는 작업으로부터 그들의 저항을 시작했던 치카나 페미니스트들은 말린체(La Malinche)/ 요로나(La Llorona)/ 성모 마리아(Virgin Mary)같은 신화적, 종교적 인물이 그들의 여성성을 역사적으로 규정하는 결정적인 전형을 제공했다는 점을 밝힌다. 체리에 모라가(Cherrie Moraga)나 글로리아 안살두아는 인디오 여자를 배반자나 복수의 화신으로 보는 시각에 도전하면서 대안적인 여성성의 원형을 과달루페 성모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특히 아나 가스띠요(Ana Castillo)의 경우, 동시대 치카나들의 영적 능력의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하면서, 페미니스트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동시대 치카노/나 작가들, 특히 1980년 이후 작품활동을 활발히 하는 작가들의 경우, 과달루페 성모뿐만 아니라 중세 수녀나 성자 등 다양한 종교적 인물들에게서 페미니스트의 원형을 찾고자 한다. 과달루페 성모가 치카노/나 특히 미국 남서부지방의 치카노/나 작가들 개인에게도 선호하는 종교적 형상이라고는 하지만, 비평에서 나타나는 것만큼 유일한 영적 힘의 근원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 아마도 라틴아메리카, 특히 멕시코적 영향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지배를 받은 이후부터 다양한 뿌리의 카톨리시즘, 기독교와 미자본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과달루페 성모의 절대적인 영향력보다는 다양한 뿌리의 종교적/영적 흐름을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치카노/나에게 있어 종교가 일반적으로 적용과 변화의 산물인 것처럼, 과달루페 성모도 절대적인 신성함의 의미를 지녔다기보다는 스페인 교회제도와의 긴장과 저항 속에서 탄생한 문화적 상징에 가깝게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대중적 종교성(Popular Religiosity)의 의미

치카노/나 종교 담론에서 또 하나의 중요 사항으로 대두된 것은 대중

적 종교성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960년 이후 교회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대중적 종교성은 제 2 바티칸 공의회 이후 열린 두 번의 라틴아메리카 카톨릭 주교 모임에서 공식적인 토론을 거치게 되었고, 민중의 진정한 신앙의 형태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1968년 메데인(Medellín)회의 이후에 문서화된 내용을 참조해 보면, 카톨릭 교회 내부에서도 신학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민중의 살아있는 신앙 표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표면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2년 산토 도밍고(Santo Domingo)에서 있었던 주교회의는 대중적 종교성에 대한 이전의 논의들에 대해 수용적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교회 내부에서도 대중적 종교성에 대해 점차 호의적이고 열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였다. 반면, 미국내 주류 사회와 교회는 대중적 라티노 카톨릭시즘(Latino Popular Catholicism)을 아직도 주변적인 종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치카노/나 신학자들은 그들의 종교성의 지배적인 표현으로 인정하는데, 정통 카톨릭시즘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세속적이고 혹은 이교도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존재적인 소속감을 부여하는 공동체의 공통적 경험과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중적 종교는 카톨릭시즘 전파를 위해 수용된 일종의 훈육의 방식이자, 과거의 신앙형태와 조화를 이루는 행위적인 측면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전수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청각적, 구술적, 연극적인 것에 대한 중세적인 기호를 반영한 스페인 카톨릭시즘과도 잘 융합되었다. 상징과 제례로 이루어진 종교 행위를 통해,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의 믿음과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기에, ‘대중적’이라는 용어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치카노/나 작가들은 주로 대중적 종교성이 지닌 연극성과 구술성에 대한 의미를 작품화한다. 몸짓을 통한 수행적인(performative) 표현이 몸의 현상학을 드러내고, 이런 수행성을 통한 종교적 의미의 전달은 구원 메시지에 대한 집단적인 해석과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중적’은 ‘민중적’ 혹은 ‘집단적’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듯하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후에 언급할 라티노 신학자들의

연구를 참조해 보면, 대중적 종교성에 관한 신학적인 논점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대중적 종교성은 살아있는, 변형하는 성격을 지녔다. 2) 집단적인 정체성과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소속감을 형성한다. 3) 일상적 삶의 일부이자 도덕적인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

라티노 신학자들은 대중적 종교성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더불어 다양한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대중적 종교성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푸에르토리코 학자, 아나 마리아 디아스 스테벤스(Ana María Díaz-Stevens, 1994, 21)에 의하면, 이 용어는 그 쓰임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기원하는 다양한 나라와 분야로 인해 용어 자체도 정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라티노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논점을 정립하는 기준으로 대중적 종교성의 의미를 정의하고자 한다. 그들의 관점과 이론 정립의 방식은 치카노/나 작가나 학자들이 종교문화를 해석하고 종교적 세계관을 형상화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이론은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스페인어 다음으로 대중적 종교는 라티나를 규명하는 가장 중요한 성격으로 문화의 주매체이다... 대중적 종교는 우리의 생존과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 경험상으로 보건대, 교회의 관심과 보호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Christianity)가 살아서 꽃피게 되는 주된 이유는 바로 대중적 종교 때문이다... 그것은 강력하고, 설득적이며, 지속적인 동기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작동하고 있는 상징 체계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Isasi-Díaz, 2002, 74-75)

아다 마리아 이사시 디아스(Ada María Isasi-Díaz)가 말하고 있듯이, 대중적 종교성이 중요성을 지니게 된 것은, 전통 카톨릭시즘과는 달리 민중의 요구와 필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쿠바이민자로 무헤리스타(mujerista) 신학을 주장한다. 그녀는 여성의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대중적 종교성의 의미를 찾으면서, 라티나 여성을 유기적 지식인(organic intellectual)으로 정의하고, 그녀들의 지식과 경험을 해방적인 인식의 기반으로 이해한다. 치카나 페미니즘이 제 1세계 페미니즘을 계

승함과 동시에 차별화 되는 것은 그들 삶의 특수성을 일괄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무헤리스타 신학 또한 일반적 여성신학과 맥락을 함께 함과 동시에 달리하게 되는 이유는 라티나의 독특한 일상적 삶을 신학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사시 디아스는 무헤리스타 신학에서 여성은 연대라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 종교적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사시 디아스의 의견을 바탕으로 라티나 작품을 비평한다면, 그녀들의 작품에 자주 드러나는 지성과 감성의 경계를 허무는 현상적 인식론과 여성의 연대(solidarity)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로베르토 고이수에따(Roberto Goizueta) 또한 대중적 종교성의 의미를 ‘일상성(lo cotidiano)’에 둔다. 그는 이들의 종교성이 미학적 실천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종교적인 체험을 아름다움의 형태로 인지하고자 한다. 미학은 고통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표현하는 감성적 반응이라는 정의 하에, 대중적 종교성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가정 제례와 교회 의식의 공존을 통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는 점과, 공동체 삶의 강조를 통해 인간 관계성을 종교의 목적으로 부각시켜 왔다는 점이다. (Luna, 2003, 47) 고이수에따의 분석은 공동체 안에서 윗세대를 통해 체험적으로 습득하는 종교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치카노/나 작가들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리베라(Alejandro Garcia-Rivera) 또한 비슷한 맥락 하에서 신학적 미학과 대중적 종교 사이의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룬다. 종교를 살아있는 신념의 미학적인 실천으로 파악하기에 문화의 기호학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미와 기호, 상징의 방법론을 적용한 그의 해석학적 방법론은 치카노/나 종교성이 지닌 진선미의 통일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 즉 미학적 표현으로서의 종교적 상징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진리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는 분석을 함으로써 대중적 종교성에 대한 해석을 한층 심화시킨다.

비르힐리오 엘리손도는 상징을 통한 문화 분석의 시조자이면서 치카노/나들의 정체성과 대중적 종교성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교회의 제도적인 체계와 병행이 되는 제례나 상징의 사용은 생존 전략이자, 신앙의 토착화를 이룬 문화적인 방식으로 행위자와 신념체계 사이의 공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의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믿음, 제례, 의식, 헌신, 기도로 이루어진 일체의 종교행위는 자발적인 행위로서, 세대를 통해 전수되고, 교회와 더불어 혹은 교회의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정체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내면의 가장 근간이자 집단 영혼의 공통적 표현이다.(Elizondo, 1986, 37)

그의 분석대로 대중적 종교성을 통해 형성되는 정체성은 삶의 기본적인 태도로서, 특히 고통과 기쁨이라는 모순적 측면에 대한 거부 없는 수용은 죽음이나 현실의 고통 앞에서도 삶의 축제성을 인정하고 즐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죽음의 문제에 대한 태도는 문학적 표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영혼을 통한 세대간의 교류는 기억을 통한 존재의 연속성을 통해서, 삶의 축제를 통한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묘사되고 있다.

대중적 종교성에 대한 치카노/나 학자들의 논의는 전반적으로 전통에 대한 발견과 재정의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것은 여성 중심의 공동체문화, 구술문화,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인식으로 표명되고, 문학적 소재로 빈번하게 사용된다. 그런데 이런 민중 지향적 특성으로 인해 작가들의 실존적인 고민이 반영된 작품의 창작과 연구는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존재적 상실감, 절대자에 대한 회구,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질문 등, 종교 문학에서 다루어지는 작가들의 실존적 탐구가 명백히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비평의 주된 장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있지 못하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여성 중심의 공동체가 구술문화를 통해 전수하는 집단적인 종교성이 강조되면서, 개인의 실존적 고뇌, 서책(text) 중심의 종교적 해석, 자본주의와 종교 간의 갈등 같은 문제에 대한 진지한 비평이 드문 것이 사실이다. 대중적 종교성에 대한 논의는, 그 주장과는 다르게, 기존의 억압적이고 가부장적이었던 전통 카톨릭시즘과 마찬가지로 현실 안주/순응적인 시각만을 제공하고 있는 듯하다. ‘21세기 미국 남서부 지역의 자본주의 사회속의 한 정치적인 개인’으로서 치카노/나가, 현실을 정면으로 직면하는 데 있어, 아무런 실천적인 철학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적 종교성의 논의는 문학과 비평에서 종교가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을 편향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면서, 실존문학이 제기하는 자아상실과 회복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4. 치카노/나 문학 속의 종교적 담론

치카노/나 문학에서 종교의 문제는 주로 ‘문화적, 역사적 원형의 탐구’라는 주제 하에 다루어진다. 앞서서도 밝혔듯이, 종교는 그들의 정체성을 발견/정립하는 데 중요한 문화적인 힘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작가의 종교관에 따라 끊임없이 재생산, 재정의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문학 내에서 생산되는 종교적 담론은 가부장제의 종속이나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혹은 미국 주류사회의 문화적 예속에 대한 투쟁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기존 종교적 담론을 비판하기도 하고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기도 한다. 결국 작가들의 핵심적 문제제기는, 정체성 규명의 과정을 통해, 기존의 결핍적인 종교 문화를 대체할 새로운 종교성/영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종교성/영성에 관한 소재는 단순하게 인종적인 스테레오 타입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마술적 사실주의 기법, 산페리아(santería), 쿠란데리스모(curanderismo)적인 에스페리스모(espirismo), 고대 인디오의 신화적인 요소들을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히스패닉이라는 수식어로 작품을 오히려 한정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치카노/나 작가들이 선호하는 소재주의로 이해하는 것으로, 또 다른 본질주의(essentialist)적 시각을 드러낼 뿐이다. 인종적·문화적 특성을 대변하는 소재로만 이해하거나, 라틴아메리카의 마술적 사실주의의 한 분파로 이해한다면, 소재가 지니는 함축된 의도와 의미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일일 것이다.

종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문학과 비평에서 종교적 담론을 생산해 내게 된 것은 1960, 70년대의 정치 운동과 더불어 구체화된 치카노/나 의식의 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60년대 이전의 작가들은 주로

미국의 문화·인종 말살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인 스페인적인 유산을 강조하고, 시민권리운동을 주장하면서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에 집중한다. 반면, 70년대 이후로는 인디오적인 유산을 재발견하고 평가하면서 좀더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폭력적인 권력체제에 저항함과 동시에 세대간의 갈등을 묘사하고, 다양한 뿌리의 종교적/영적인 유산에 대해서 차별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피력한다. 영적인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신화의 세계를 탐구하거나, 실존적인 탐구의 일환으로서 멕시코적인 뿌리와 만나는 시도를 형상화한다.

후안 부루세-노보아(Juan Bruce-Novoa)(1980, 25)에 의하면, 치카노 작가들, 호세 안토니오 비야레알(José Antonio Villareal), 루돌포 아나야(Rudolfo Anaya), 토마스 리베라(Tomás Rivera), 롤란도 이노호사(Rolando Hinojosa), 존 리치(John Rechy) 등은 종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서, 카톨릭 교회의 억압적 구조와 위선, 현실적 의미를 상실한 제도화된 종교행위 등에 대해 소설화한다. 미국 남서부의 역사에서 치카노 이민 노동자들의 역할, 그들의 존재에 대한 역사적 배제, 착취와 차별에 대한 그들의 투쟁을 그리는 작품에서는 종교가 이런 미국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묘사한다.

치카노 작가들은 카톨리시즘에 대한 거부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치카노/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종교 일반에 대해 거부한다기보다는 인디오적인 유산의 발견과 새로운 영성에 대한 암시로 나아간다. 그러나 인디오 전통에로의 회귀는 남성 세계에만 한정된 경향을 보이면서, 카톨리시즘을 통한 치카노 공동체를 형성, 유지하는 여성들의 참여를 등한시하였다. 치카노 작가들이 지닌 여성배제적인 태도는 그들이 지닌 카톨리시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연관이 있다. 남성 작가들은 종교적인 문화를 여성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고, 여성을 종종 말린체와 유사한 모습, 즉 자신들의 공동체를 배반하는 모습으로 그렸다. 남성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활동을 강조하면서 남성위주의 저항을 그린 작품들은, 이후에 여성의 역할과 저항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결국, 치카노 운동의 핵심은 ‘문화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였지만, 이후 치카나 작가/비평가들에 의해 반페미니스트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받는다.(Delgadillo, 2000, 118)

치카나 작가들은 자신들의 신체에 대한 통제와 성차별주의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게 되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을 함과 동시에 가족 내의 일상적 삶, 노동자의 삶 등 치카나 삶을 조건지우는 일체의 기반들을 검토해 나간다. 다른 제 3세계의 여성들의 자아 정의를 위한 탈식민주의적 노력과 유사하게, 치카나들은 여성 신화적 인물이나 원형들로부터 페미니스트의 원리를 구하면서, 망각되고 왜곡된 역사를 재건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초기 페미니스트들은 공동체의 삶과 인종적 생존의 문제로 인해 희생하는 여성들의 삶을 존경함과 동시에 여성에게 종속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가부장적인 체제를 거부해야 하는 딜레마를 표현해야만 했다. 성자에 가까운 희생적인 여성들이 지닌 영성에 대한 탐구는 그 이후의 작가들에게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에스텔라 포르티요 트램블레이(Estela Portillo Trambley)는 치카나 작가들 중 앞선 세대에 속하는 작가로서, 영적인 선조들이 지녔던 페미니스트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다. 인디오적 근원의 회복에 관심을 두고, 치카노/나 공동체의 투쟁의 역사에 종교적/영적 힘의 재건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인디오 여성이 치카나로 변화하는 과정과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다시 인디오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영적이고 성적인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1980,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치카나 작가들 사이에서 카톨릭 전통의 다층적인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보인다. 그들은 치카나 페미니즘-사회정치운동, 민족의식 고양, 페미니스트 해방운동-을 계승하고 다양한 출판활동을 통해 국내의 두터운 독자층을 만들면서, 여성 중심의 시각으로 종교적 담론들을 생산한다. 여기에 페미니스트적인 관점과 인종·민족적인 관점이 중첩되면서 종교 담론이 지닌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 복합적으로 조명한다.

이 세대에 속하는 작가들은 대표적으로 드니즈 차베스(Denise Chávez), 체리에 모라가, 데메트리야 마르티네스(Demetria Martínez), 노르마 칸투

(Norma Cantú), 산드라 시스네로스(Sandra Cisneros), 아나 까스띠요가 있고, 이들은 창작물과 아카데미한 비평을 통해 치카나 문학 운동을 이끌어 가고 있다. 데브라 까스띠요(Debra Castillo)나 노르마 알라르콘(Norma Alarcón)이 지적하듯이, 치카나 작가들은 문학과 비평을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문학화하고 있는 상황이나 인물들이 자전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고, 작가 개인의 페미니스트적, 혹은 탈식민주의자적인 시각을 직접적으로 발화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작품 개인적인 ‘전복의 정치학’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카톨리시즘에 대한 비판, 종교적/신화적 인물을 통한 주체성의 재점령, 여성중심의 공동체적 삶을 통한 여성성에 대한 탐구 등이 주된 문제의식이라고 하겠다.

이들 작가들은 카톨리시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의 차이에 따라 문학화 하는 방식 또한 달리고 있다. 하지만 작가 개인의 비판의 정도와는 별개로, 종교적인 상징과 표현은 삶의 양식에 깊게 천착되어 있기 때문에 작품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가치와 불가불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팻 모라(Pat Mora)의 경우는 문화적 카톨릭(Cultural Catholic)이라는 삶의 양식을 영위하면서 카톨리시즘이 지닌 문화적인 풍부함을 문학화하고 있다. 『집들 중의 집 *House of Houses*』에 드러나는 종교적 제의와 행위는 개인의 감각적인 반응을 지배하는 감성적인 경험으로 간주된다. 반면, 까스띠요나 비라몬테스의 경우는 카톨리시즘이 끼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 고통에 대한 내재화와 수동적인 수용(Christian, 2005, 18)에 대해 주로 묘사한다. 엘레나 비라몬테스(Helena Viramontes)의 소설 『예수의 발밑에서 *Under the Feet of Jesus*』에서는 남부 농촌 배경의 치카나가 겪는 제국주의적인 착취 시스템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묘사하면서 치카노/나 정치의식이 형성/표면화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카톨리시즘의 억압적인 영향을 암시하면서, 종교적 선택을 통해 주체적 여성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종교적 메시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도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주인공이 택하는 방식을 다시 종교적인 의미의 상징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까스띠요의 소설 『신으로부터 멀리 *So Far from God*』는 마술적

사실주의의 기법을 사용한 작품으로 카톨릭 교회의 제도적 경직성을 비판하면서, 대중적 종교성이 지니는 소외계층에 대한 심리적, 윤리적 도움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작품 전반은 카톨릭 문화가 양산하는 감수성과 가치인식이 개인의 일상에 녹아들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이들의 작품들에서, 전통적 카톨릭시즘(Official Catholicism)은 주로 가부장제, 인종차별, 성적 억압 등의 문제와 함께, 이것이 양산하는 현실의 면적인 문화로 인해 비판을 받는다. 세대, 이데올로기, 계급, 성에 따라 카톨릭시즘이 빚는 다양한 대립 양상이나, 자본주의 착취에 순응하는 종교적 논리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작가들에 의하면, 카톨릭 교회는 여성의 고유의 감수성이나 생리적 특성에 대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고통에 대한 인내만을 강조하는 억압적 문화를 형성해 왔다. 부정, 성적 방종, 무책임 등의 윤리적 문제에서 남성에게는 관대한 데 데 반해, 여성에게는 혹독하게 억압적이라는 면을 보인다. 처녀성의 강조는 육체적인 욕구와 생리적인 현상을 죄악시하고 동시에 심리적인 수치감을 깊게 심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치카나 작가들은 여성에게 육체의 문제는 수치감과 연결되어 물리적, 심리적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발한다. 모라가(Moraga, 1983, 132)는 ‘죄와 불순종’의 문제가 여성의 신체에 굴레를 지운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종교담론은 억압기제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성을 지니는 일은 해방의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안살두아와 더불어 치카나 동성애자 페미니스트인 모라가는 여성 공동체에 깊게 배어있는 내면의 목소리가 서구적 이성과는 다른 형태의 의식체계를 생산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녀는 반동성애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계급차별에 대한 투쟁의 필수 요소로서 여성의 영적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힌다. 안살두아 또한 주체적인 행위자로 개인을 인식하는 일이 치카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밝힌다. 서구의 자본주의적, 이성적인 사고에 저항하고, 치카노/나의 본질적인 타자성과 신화적인 기억을 밝히는 작업이 중요한 저항담론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한다.

드니즈 차베스와 데메트리야 마르띠네스는 모라가나 안살두아처럼 전

통 카톨리시즘의 영향에 대해 페미니스트적인 비판을 가하지만, 해방신학과 여성신학의 영향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카톨리시즘의 재발견과 재습득에 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들은 여성의 공동체가 중남미의 정치적, 종교적인 흐름과 연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치카나들이 정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면모를 강조한다. 카톨리시즘의 전면적인 거부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온 여성들에게서 카톨리시즘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지하고자 한다. 종속과 지배라는 패러다임을 넘어서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을 그녀들이 지닌 영적인 힘과 가치, 여성적 지식과 감성의 특수성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치카나 작가들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기존의 종교성, 인식론, 역사인식, 여성성을 전복하고 대안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해체론적 접근을 한다. 여성적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던 가정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역사적 사건에 진정한 행위자로서 여성의 존재를 재발견하고, 여성성이 지닌 저항적 가치를 재평가한다. 역사적으로 축적된 집단적 기억이 지니는 창조적인 능력을 고찰하고, 수행적 의미로서 종교적 행위를 인식함으로써 해체와 창조를 거듭하는 해석의 장을 형상화한다. 미래 지향적인 종교성을 암시하면서, 새로운 종교적 담론의 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들의 정체성이 삶의 다변화하는 조건들에 반응하면서 끊임없는 변화를 내포하고 있듯이, 종교성/영성에 관한 담론 또한 고착된 정의를 벗어나 지속적인 형성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녀들의 종교 담론이 기존의 종교에 관한 비판과 평가를 넘어서 지속적인 생산의 장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Ⅲ. 결론

동시대 치카나 작가들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문학적 접근이 종교적 담론을 심화, 발전시키고 있다. 작가들은 내러티브의 구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중적 종교성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고, 신학적 논의의 성장과 함께 치카나 페미니즘의 발전을 바탕으로 제도권 내의 가부장적

종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영성을 탐구하는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종교성에 관한 소재는 종종 문학적 공간의 문제와 연관되기도 한다. 여성적 공간(female space)과 국경지대(borderland)의 영적인 재개념화의 문제를 다루거나 치카나와 멕시코 여성 사이의 영적인 교류를 통해 탈국가적인 흐름을 다루기도 한다.

치카노/나 텍스트는 종교적 삶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를 넘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텍스트 내에서 생성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종교를 둘러싼 권력의 역학관계, 혼종성의 과정, 대안적 미래에 대한 가능성 등의 다층적인 내러티브를 통해, 자본주의의 체제를 넘어서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지금까지의 치카노/나 비평의 전반적인 경향은 작가들이 제시하는 저항의 정치적인 가치를 메소아메리카의 전통에서 찾고자 하며, 그것을 ‘차이’와 ‘다름’의 기제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런 흐름은 치카노/나의 그간의 성과를 창조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지만, 전통적인 메소아메리카적 뿌리로만 제한하는 인식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특히 치카나 작가들의 페미니스트적인 대안이나, 종교가 제시할 수 있는 실존적 지향성에 대한 문제, 차이와 혼종성에 대한 자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볼 때, 이런 기존의 평가를 넘어선 보다 더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개념적 틀과 정의를 필요로 한다. 물론 치카나 작가들이 제시하는 종교성/영성에 관한 대안을 이해한다는 것은 데리다가 ‘환대’나 ‘선물의 경제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체제 안에서 종교가 기능할 수 있는 비공약적(incommensurable)인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작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종교적 가치들은 서구 이성적인 체제를 넘어서서, 자아와 타자를 진정으로 만나고,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는 것으로 비록 언어적 규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평적 관심을 받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quino, María Pilar, Ed.(2002), *A Reader in Latina Feminist Theology: Religion and Justice*, Austin, Univ. of Texas Press.
- Bañuelas, Arturo J.(1995), *Mestizo Christianity: Theology form the Latino Perspective*, Maryknoll, Orbis Books.
- Bruce-Novoa, Juan(1980), *Introduction to Chicano Authors: Inquiry by Interview*, Austin, Univ. of Texas Press.
- Christian, B. Marie(2005), *Belief in Dialogue: U.S Latina Writers Confront Their Religious Heritage*, New York, Other Press.
- Christie, John S.(1998), *Latino Fiction and the Modernist Imagination: Literature of the Borderlands*, New York, Garland Publishing.
- Delgadillo, Theresa Ann(2000), “Hybrid Spiritualities: Resistance and Religious Faith in Contemporary Chicano/a Fiction, Drama, and Film”,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 Díaz-Stevens, Ana María(1994), “Popular Religiosity and Socio-Religious Meaning”, *An Enduring Flame*, New York, Bildner Center.
- Elizondo, Virgilio(1986), “Popular Religion as Support of Identity: A Pastoral-Psychological Case Study Based on the Mexican Experience in the USA”, *Popular Religion*, Edinburgh, T.&T. Clark LTD.
- Isasi-Díaz, Ada María, Ed.(1996), *Hispanic/Latino Theology: Challenge and Promise*, Minneapolis, Fortress Press.
- _____(2002), *Mujerista Theology*, Maryknoll, Orbis Books.
- Geertz, Clifford(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United States, Basic Books.
- Luna, Anita de(2003), *Faith Formation and Popular Religion: Lessons From Tejano Experience*, New York, Rowman & Littlefired Publishers.
- McCracken, Ellen(1999), *New Latina Narrative: the Feminine Space of Postmodern Ethnicity*, Tucson, Univ. of Arizona Press.
- Moraga, Cherrie(1983), *Loving in the War Years: Lo Que Nunca Pasó por Sus Labios*, Boston, South End Press.
- Pérez-Torres, Rafael(1996), “Feathering the Serpent: Chicano Mythic Memory”, *In Memory and Cultural Politics: New Approaches to American Ethnic Literatures*. Boston. Northeastern Univ. Press.

- _____(1995), *Movements in Chicano Poetry: Against Margins, Against Myth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Ramirez, Sarah(2002), "Borders, Feminism, and Spirituality: Movement in Chicana Aesthetic Revisioning", *Decolonial Voices: Chicana and Chicano Cultural Studies in the 21th Century*,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 Torres, Edén E.(2003), *Chicana Without Apology: The New Chicana Cultural Studies*, New York, Routledge.

이은아

고양시 일산구 주엽 2동 문촌마을 1609-801

전화번호: (031) 915-0164

E-mail: novela63@naver.com

논문접수일: 2005년 11월 15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9일

게재확정일: 2005년 12월 12일